

가 전 양계인들의 권익을 위해 뚜렷한 방향과 이에따른 의욕을 보일 때 당국이 보는 각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계란 GP 센터의 설치라든가 양계업의 기반을 확실히 한다는 측면의 점성소 이전, 확대 방안 등 외에도 양계인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협회가 전 양계인들의 힘을 합하는데 주력 할 수 있다면 이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값진 것이 되고 양계 산업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그동안의 미해결 과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또 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양계」도 지령을 더해 오면서 양계 전문지로 그 기능을 다해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지가 미처 손을 못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심층성 있게 실어 명실공히 양계업을 선도

하는 전문지로 커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편 양계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협회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어려운 해인 만큼 양계인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때가 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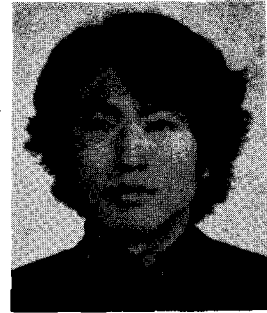
양계인의 사회적 지위는 협회가 만들어 주는 것도 당국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양계인이 힘을 합하고 모이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일 때라는 것이다.

지난해 ILT 피해만을 보더라도 양계인 스스로가 피해를 자초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오고 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새해에는 양계인들이 협회를 살찌우는 해, 협회가 양계인들을 배부르게 하는 해가 될 것을 기대하며 당국에서도 이제 양계업을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산물보다 등한시 하는 정책은 없기를 바란다.

쇠고기 편중 소비성향을 닭고기로 전환시키는 정점의 해로

박 왕 근
(우성양행(주) 영업부)



다사다난했던 지난 임술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양계인 여러분의 가내에 신의 가호와 섭리가 함께 계시고, 만복이 깃들기를 빌며 아울러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양축가 서비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몇가지의 바램을 적어 볼까 한다.

첫째, 올해는 우리 전 양계인이 모든 지혜와

힘을 합하여 축산업국의 대명제 하에서 양계업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생산조절을 잘 하여 경기의 파동없는 안정된 생활의 수축과 함께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양계산업의 번창을 이룩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향해 정진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면 한다.

둘째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식생활 개선으로 육류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쇠고

● 1983년에 바란다

기 위주의 소비성향이 강한 요즈음 닭고기의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더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아감으로써 닭고기의 소모량이 많아졌으면 한다.

세째로, 우리 양계인들의 힘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양계의 경영합리화를 이룩하여 양계인 각자 스스로의 권리를 옹호하며 생활하여 나아가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네째로, 위생 예방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 질병의 예방에 최선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구입처의 질병 유무상황과 그 인근지역의 질병 발생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질병 없는 양계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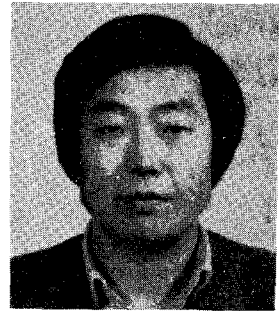
더우기 작년 경우처럼 I.L.T의 만연으로 인한 양계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철저한 예방 조치로써 그와같은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줄 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의 바램들을 축산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않은 필자가 느낀 대로 몇자 적어 보았다.

짧은 글이나마 이렇게 몇가지 바램을 쓸 기회를 주신 양계협회께 감사를 드리며 이같은 바램이 올 새해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동물약품 제조판매회사의 일선 영업사원으로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양계인 여러분께 아낌없는 봉사를 드릴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공통된 마음을 한데 모아 자신의 지위향상을 위한 한해가

강 석 부
(본회 수원분회장, 육계업)



계해(癸亥)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양계업계의 발전과 양계인에게 신의 가호가 있길 빈다. 다시한번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양계업은 어느 해 보다 빠듯던 해였다고 본다. 봄부터 찾아온 ILT는 양계업계에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피해는 막대하리라 보는데 다행히 신속한 백신공급으로 다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일원에서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게 여기며 하루속히 ILT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져 금년은 이런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82년은 우리 양계업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TV에서 소비촉진 PR방송을 하였다. 참으로 누가 했던간에 양계인으로서 기쁨과 흐뭇함을 느끼게 하였다.

정책적인 육류소비 전환의 일환이지만 양계업계는 지난해 그 홍보의 덕을 본 것이 사실이고 홍보라는 위대한 힘을 재인식 했다고 본다.

바라건대 금년도에도 계속적이고 창의적인 또한 자발적으로 온 매개체를 통하여 홍보에 힘쓸 해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양계산물은 타 육류보다 질과 가격면에서 월등하면서도 소비자로부터 하등시 되어왔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산한 상품을 개방하지 않았고 또한 소비